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배포일자	2022년 12월 27일(화) 총 4매		
담당 부서	고속도로재생과	담당자	• 일반화정 책팀장 김민규 ☎440-4181 • 담당자 추명균 ☎440-4182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대로 지하도로 건설, 예타 통과 ... 2027년 개통 목표

- 가좌 ~ 서인천나들목에 왕복 4차로 지하도로 4.53km, 총사업비 5천40억 원 -
- 통행시간 단축으로 연간 330억 원 편익 기대 -

옛 경인고속도로인 인천대로의 지하도로 건설사업이 예타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지하도로 시대가 열리게 됐다. 더불어 인천대로 일반화에 따른 극심한 지·정체 및 원도심 지역의 교통혼잡이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민선8기 주요 공약사업인 ‘공단고가교 ~ 서인천나들목까지 혼잡도로 개선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27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옛 경인고속도로인 인천대로(공단고가교~서인천나들목)에 왕복 4차로의 지하도로(총연장 4.53km)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천 40억 원이 투입된다.

현재 인천대로의 가좌부터 서인천 구간은 출퇴근 시간 서비스 수준이 F등급에 이를 만큼 매우 혼잡한 도로다. 더욱이 일반화 후에는 교통량 분산에 따른 원도심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혼잡이 더욱 가중될 것

으로 예측되는 만큼 광역교통 흡수를 위해 지하도로 건설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교통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지난 해 7월 국토교통부의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에 지하도로 건설을 반영시켰으며, 같은 해 11월과 12월에 국토부와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로 최종 선정된 바 있다.

인천시는 올해 1월부터 시작된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사업 타당성에 대한 철저한 논리를 개발해 지속적으로 설득하였고 국회, 전문가들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4번의 도전* 끝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는 쾌거를 이루어냈는데, 이는 지자체가 시행하는 지하도로 건설로는 전국 최대 규모이다.

* ‘문학~검단 민자사업’ 적격성조사 미통과, ‘문학~공단고가교 혼잡도로’ 대상사업 2번 미선정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하도로를 이용하는 일 교통량은 약 6만4천대로 예상되며, 지하도로 건설 후에는 인천대로와 주변도로의 교통 혼잡이 크게 향상돼 연간 330억 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시는 내년 설계에 착수하고 2024년 착공에 들어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로 인천시민의 꿈이 이뤄지게 됐다”며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시민들에게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 참고 > 위치도 및 조감도



